

정청래, 총청이어 영남권 압승... 민주 당권 '우위' 선점

권리당원 투표 누계 득표율 정청래 62.65%·박찬대 37.35% 지도부, 전국적 폭우 피해에 경선 일정·방식 변경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따돌리며 누적 1위를 이어갔다.

정 후보는 19일 열린 총청원 첫 경선에 이어 20일까지 이를 연속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후보의 이틀간 누계 득표율은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당권 레이스 초반의 확실한 당심 우위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경선 두 번째 지역인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합동 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정 후보가 62.55% 득표율로 박 후보(37.45%)에 약 25%포인트 앞섰다.

이로써 정 후보는 지금까지 치러진 두 번의 권역별 경선 모두 박 후보에 압승하면서 전대 초반 유리한 고지를 점한 모습이다.

정 후보는 전날 전국 권역별 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박 후보를 약 25%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중원 지역에 이어 '힘' 지 영남에서도 정 후보의 우세가 확인된 셈이다.

정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영남권 투표에서 65%라는 역대급 득표율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당원들께서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세력 척결에 변함 없이 약속드린 대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 힘을 겨냥해 국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와 선거법 위반 혐의가 100만원 이상으로(형이) 확정되면, 선거 보전 비용 약 400억원을 토해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21일 총남 예산, 22일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 후보에 당심 투표에서 이를 연속 뒤진 박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 후 곧바로 수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 상황에도 민주당을 응원해준 충청·영남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다. 박찬대, 정청래, 황명선을 응원해준 12만1천320표를 잊지 않겠다"며 "이제 모든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국민 결의로 간다. 함께 더 크게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적었다.

앞서 박 후보는 전국적인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당 대표 경선 일정을 중단하자고 당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늦게 최고위원들을 대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박찬대(가운데) 당대표 후보,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8·2 전당대회 순회 경선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경선 일정 및 방식 변경 여부를 놓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

를 정한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권리당원을 제외한 대의원·일반국민 투표 결과는 전국 순회를 마친 뒤인 8월 2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발표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부산에서 현장 순회 경선을 계획했으나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연설회를 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선언... 나경원, SNS에 “불출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유례없는 이재명 총통 독재는 국

회를 장악해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다"며 "행정부는 이재명 총통 독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사법부마저 부패하고 정치화돼 이재명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그는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해 역울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경원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당과 나라를 위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당분간 국민의힘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고민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당의 본질, 존재 의미와 기본 가치를 다시 세우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민생과 국익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새로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전 의원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4명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을 새만금개발청 청장으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에 대해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가진 것이 장점"이라며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현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을 거치는 등 공공과 민간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권대영 현 금융위 사



최동석 처장, 김의겸 청장, 권대영 부위원장, 유홍준 박물관장

무처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 대응 금융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연합뉴스

민노당, 다시 '정의당'으로

지난 대선 때 야권 연대 위해 한시적 '민노당' 당명 사용

민노당당은 19일 정의당을 다시 당명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6·3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결정은 당시 대선에 공동으로 대응했던 노동당·녹색당과 일부 민주노동 산별노조 등과 결성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정의당은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와의 대선 공동 대응 성과가 내년 지방선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영국 대표는 이날 당 대회에서 "대선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계승·발전해 지방선거를 진보정치의 부활·재건의 신호탄을 알리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